

호남대, 청소년 축제서 中 전통문화체험



호남대학교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와 공자아카데미(원장 이정식)는 지난 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펼쳐진 '제4회 청소년 축제'에서 중국 전통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호남대 제공>

한은 광주전남본부, 하계 교사직무연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명중)는 최근 지역 중등교사 41명이 참여하는 '2015년 하계 교사직무연수'를 개최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제공>

적십자사-31사단, 청소년 RCY하계캠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최상준) RCY분부는 최근 31사단 신병교육대와 함께 곡성군 일원에서 청소년RCY하계캠프를 진행했다. <적십자사 제공>

민주평통 광산구협의회 17기 출범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시 광산구협의회 제17기 출범식이 최근 광산구청에서 열렸다. 이날은 제16기 김용재 회장 이임식과 제17기 김승언 회장 취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시 광산구협의회 제공>

“노래로 순천만 정원을 알리고 영호남 교류 앞장”

‘순천·순천만 노래’ 잇따라 발표 부산 출신 작사가 정준씨

문화기획자이자 시인, 소설가인 정준(59)씨는 올해 새로운 작업을 더했다. 바로 '작사가'다. 최근 순천만 정원을 알리는 노래 여섯곡을 작사하고 발표해 순천시민에게 선보였다.

‘순천아리랑’, ‘흑두루미’, ‘순천만의 꿈’, ‘천년학 사랑’, ‘순천이가씨’, ‘순천만 갈대숲에서’까지 순천과 순천만을 연상하게 하는 노래들이다. 비 내리는 순천만 갈대밭을 걷다가 갑자기 떠오른 시상을 그 자리에서 적어 가사를 짓고 여기에 작곡가 김인호가 곡을 붙여 ‘더 브리지’(The Bridge) 앨범이 출시됐다.

인터뷰 내내 유쾌한 웃음으로 보는 이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그에게 간혹 구성된 경상도 사투리가 들렸다. 함평 나비축제·진도군·해남군 정자 명예홍보대사를 맡고 있어 지례 호남 출신으로만 여겼던 기자가 조심스레 고향을 물었더니 부산 출신이라고 답했다. 심지어 그가 만든 순천만 테마노래를 부른 가수들도 대부분 영남 출신이다. 이유를 묻자 잠시 호흡을 고르더니 답을 이어갔다.

“명랑해전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의 수하 장수 중 정운(鄭運 1543~1592) 장군이 있습니다. 해남 출신으로 이순신의 선봉장을 지냈던 정운 장군은 고향인 호남 바다를 지키는

위기때 해남서 삶의 자신감 얻어

함평 나비축제 등 홍보대사 맡아

한일·한중 우정의 노래 발표할 것

계 자신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부산에 쳐들어오자 충무공을 설득해 수군을 이끌고 영남지역을 지키기 위해 나가 싸웠습니다. 그후 많은 공을 세웠지만 결국 선조 25년(1592년) 부산포 해전에서 적탄을 맞아 전사했습니다. 정운 장군은 호남 사람이지만 영남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분의 고향 해남과 업적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다 보니 어느덧 영호남 교류에 나서게 됐습니다.”

첫 출발은 해남이었다. 지난 1998년 갑작스레 찾아온 경제위기로 국가와 개인 모두가 뿌리째 흔들렸다. 연일 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속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넘쳐났다.

위기는 그에게도 찾아왔다.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고 가족이 큰 사고를 당하자 절망에 휩싸였다. 삶의 끝자락에 왔다고 여기는 순간, 우연히 땅길 해남이 떠올랐다. 아무 기대도



없이 그곳을 찾아가 하룻밤을 묵었다. 그런데 땅길 마을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끝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다시 도약을 꿈꾸게 됐다. 그렇게 5시간 동안 18편의 시를 적었다. 그렇게 만든 시에 정풍송 씨가 곡을 붙여 탄생한 곡이 ‘땅길에서’다. 해남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만든

이 곡은 가수 설운도가 부르며 널리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남을 알리는 ‘희망의 땅길 축제’를 만들어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이들과 희망의 구호를 외치며 해남을 달렸다. 이후 함평 나비축제를 보고 1년여에 걸쳐 ‘나비처럼 살다’라는 소설도 펴냈다. 이를 계기로 함평군과 인연을 맺고 나비축제 기간 중 특별열차를 제안해 전국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제대로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소설가와 시인이 됐다. 이제 지역 축제 문화기획자이자 작사가로 영호남 교류에 힘쓰겠다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힘든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조금 더 많이, 심하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비에서 포기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절망의 끝에 서 있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쉽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 순간을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대신 그걸 넘겼을 때 얻는 걸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저는 환갑을 앞두고, 작사라는 재능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순천만에 헌정하는 노래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두 나라와 우정의 노래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물놀이 응급처치법 무료로 가르쳐 드려요”

적십자사 수상안전 교육장 강사 최성기·인환 부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최상준)의 2015년 하계 수상안전 요원 교육 장에는 부자(父子) 수상안전 교육 강사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광주·전남지사 수상안전요원 운영 장에서는 노년 적십자 수상안전강사 모자를 쓴 최성기(52)씨와 아들 인환(23)씨가 수상안전 요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두 부자의 안전에 대한 이력은 특별하다. 우선 아버지 최성기씨는 2013년도 수상안전법 강사과정을 시작으로 응급처치법과 산악안전법까지 모든 안전관련 강사과정을 수료했다.

아들 최인환씨 또한 아버지를 따라 2014년도 응급처치법 강사과정을 시작으로 수상안전법과 산악안전법 강사과정을 모두 마쳤다.

안전의식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이들 부자는 교육도 봉사도 생각하며, 전혀 수 강료를 받지 않는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에 비해 남다른 부자는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준비운동이 중요하며, 자신의 수영실력을 자만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회복지법인 베타니아, 네팔 지진피해돕기 300만원 전달

사회복지법인 베타니아는 네팔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최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 정)에 전달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수 교육 및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베타니아는 최근 ‘초록장터’를 열어 성금을 마련했다.

베타니아 김중호 이사장은 “네팔 지진을 겪은 아이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땅지 않은 성금이지만 실의에 빠진 네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세만금지방환경청장 조병옥씨

세만금지방환경청은 최근 제17대 청장으로 조병옥(53)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인 그는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환경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수도정책과장, 대기관리과장, 국토환경정책과장 등 주

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조 청장은 취임사에서 “전북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이 이뤄지는 고장으로 만들고 싶다”며 “모두가 공감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환경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인사

◆영광군 ◇4급 승진 ▲최정길 영광읍장 ▲이현춘 안전관리과장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종친회

▲진주 정씨 돈목회(회장 정재석) 하계 수련회=7일(금) 오전 11시 지리산 피아골 산 아래 첫집. 010-4646-4815.

알림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양택, 음택·수택, 나경/입향론, 비결명당, 장법요강이론과 현상 영상강의(책자무료 제공) 8월 29일(토) 오후 1시 30분~5시 광주대 호심관 904호 문의 010-3609-8117.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 =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이자, 장례지도사무이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 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

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 =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치 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여가운영 프로그램 수강생=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 방송댄스, 요가 월~목 문의 062-

951-9461.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인=지체, 뇌병변장애인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기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미슬미로·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유 1만8000원. 061-332-8991~2.

▲길라잡이 프로그램 회원=(베이비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증·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부음

▲김옥근씨 별세 석민·석기·형석·영

석씨 부친상=발인 4일(화)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장영성씨 별세 원창(사할린한국교육원장)·수원(DYD REF. SYSTEMS)·영

원(주)체리부로 금계지점)·선희(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태원(한)한국폴리테크)·윤희(대전 대덕구청)씨 부친상=발인 5일(수) 광주천지장례식장 VIP실 302호 062-527-1000.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송고원 님 (남/77세) 子/子婦: 송태원/임미경, 정현/박수영 女/婿: 송은주, 윤미/문대영 *발 인: 8월 4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1	301호 故소영태 님 (남/86세) 子/子婦: 소용희/박은미 女/婿: 소정숙/유준영, 희숙/윤 未亡人: 양기남 *발 인: 8월 5일 *장 지: 무안청계선영 *연락처: 227-4382
401호 故전종실 님 (여/49세) 子/子婦: 소양민/김현지, 방주 夫/妻: 조종원 *발 인: 8월 4일 *장 지: 보성 북새선영 *연락처: 227-4383	402호 故박영우 님(남/74세) 子/子婦: 박동해/김미희, 승재 女/婿: 박가연, 가심/양영배 未亡人: 김옥래 *발 인: 8월 5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101호 故이기순 님 (여/79세) 子/子婦: 정종원/최영숙, 종홍/김종옥, 종훈/최은경 夫/妻: 정복성 *발 인: 8월 5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102호 故신근순 님 (여/78세) 子/子婦: 이준하, 상민/이선옥 女: 이민자, 선아 夫/妻: 이태모 *발 인: 8월 4일 *장 지: 영락공원(화정) *연락처: 227-4386

孝 金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